

연중 제15주일

(복자 안드레아 김신부
대축일 미사)

기도서 496 편

제1독서 : 역대 하 24, 18-22

제2독서 : 로마 5, 1-5

복음 : 마태 10, 17-22

숲 정 이

발행처 전주교주교구
편집장 홍보국
인쇄관 리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 강론



후회없는 성실한 삶을 살자

15세의 어린 나이. 요즈음 아이들로 치면 이제 겨우 중학교 3학년이 다닐 나이로, 아직 무어가 무언지 제대로 모를 나이입니다. 그같은 나이에 민족복음의 사도의 길을 택하여 온갖 고난과 역경이 앞길에 놓여 있는 마카오 유학의 길을 떠난 소년 김 안드레아.

굳은 의지와 깊은 신심이 있었기에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24세의 나이에 한국 수선 탁덕의 영예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국 신학교 생활의 어려움, 오면서 가면서의 험한 길, 이 나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전교사제들을 영입시키기 위해 다닌 수만리 뱃길, 쌓아놓은 성덕과 들인 노고에 비한다면 몇 십년간이라도 민족을 위한 복음전파에 온갖 정력을 다 쏟으시다가 죽으셨다 해도 서운할 지경인데, 25세의 청춘의 나이에 치명의 칼을 받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의 서운했음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었습니까?

신부님은 순교의 월계관을 받기 전 감옥에 갇혀 계시면서 교우들에게 위로의 말을 담은 장문의 유증서간을 보내어 비록 1년 남짓한 사목생활, 그것도 실제 교우들과 접하여 사신 기간은 더 짧은 기간이지만 몇 십년 사목생활의 뉘를 다하시었습니다. 짧은 생애이지만 결코 후회없는 삶을, 성실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김신부님의 축일을 맞아, 성녀 소화 테레사가 선종하기 전에 하신 "마지막 남긴 말씀"에서의 한 대목이 문득 떠오릅니다.

"나의 생애를 다시 한 번 되산다고 해도 여태까지 한 그대로 살겠습니다."

박해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버지를 여의고, 만나고 싶은 어머니를 비롯한 일가친척들도 제대로 만날 수 없는 인간적 고통의 나날이었지만 김신부님은 주님의 말씀에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나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마태 10, 22) 우리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고 또한 하느님의 영광과 은총에 참여할 희망을 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하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삶이 고통의 나날이라도 구원의 희망 속에 기뻐 인내하며, 다시 오늘의 우리 생애가 되풀이 된다고 해도 후회없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노력을 하도록 합시다.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이 불러가신다 해도, 다시 태어나 오늘의 삶을 다시 산다고 해도 결코 후회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생활에 성실을 기합시다.

(노송동 보좌신부)



만남의 이야기들

□ 전우와 직녀는 1년에 한 차례씩 만난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절석날에 대개는 비가 온다고 한다.

□ 이 땅의 우리 형제들은 이제서 33년만의 만남을 시작하고 있다. 초조하게 서로를 확인하다가 만나는 그 기쁨의 순간, 누구나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다. 참으로 불행한 민족의 비극적인 현상인지라 세계의 매스컴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나라밖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마치 잊혀졌던 또 하나의 베트남 난민들처럼 보일지 모르나, 우리들에게는 사실 심각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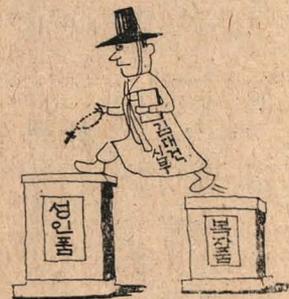
그렇다고 민족의 비극을 지켜보며 언제까지나 눈물을 흘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 무언가를 정리해 보아야 한다. 우선 전쟁은 없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체제에 대한 견해차이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과 영원히 헤어졌거나 일시적으로 떨어져 사는 사람들의 아픔도 기억하자. 그런 사람들을 다시는 이 땅에서 볼 수 없어야 한다. 또한 부모 형제들이 함께 모여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도 다시 배우자. 그리고 서로 감사하며 살자.

□ 불가(佛家)에서는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 있다고 한다. 이 스침도 만남의 하나라 할 수 있다.

□ 몸이 일그러지고 맘이 비탈어진 사람들과 만나며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더러 있다. 현미경을 통해서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풀벌레와 새 울음 소리에서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다. 여기에 진정한 만남이 있는 것이다.

33년만의 만남을 보면서 되돌아 보아야 할 일이 많다. 늘 함께 식탁에 둘러앉은 식구들,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인의 마음 속에서 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숲 정 이 산책



속히 시성되시도록 기도합시다

떼제 (Taizè) 기도회 안내

때 : 7월 23일 저녁 8시
장소 : 중앙성당 강당

□ 떼제란?

떼제란 불란서 사본쉬르 지방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한 작은 마을로써 1940년 이래 떼제를 성(姓)으로 하는 수사들의 공동체 본부가 되어온 곳이다.

현대 세계에 마더 테레사 수녀, 끼아라 루빅 등과 함께 가리시마적 인물로 손꼽히는 창설자 로제(Roger) 수사는 스위스 목사와 불란서 여인의 아들로서 20살 때 교회의 일치를 찾고자 하는 열망을 느꼈으며 신학을 공부한 뒤 자기의 꿈을 실현할 공동체를 설립하고자 집을 구한 곳이 바로 떼제 마을이었다. 1942년 전쟁이 끝난 후에 그는 인간의 비탄 속에 복음을 심고자 했으며 그의 뜻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공동생활을 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수사들은 가톨릭을 포함하여 여러 종파에서 왔으며 이들은 종파를 초월하여 모든 크리스찬들의 눈에 보이는 일치를 촉구하고 있다. 그들은 기도와 나눔과 침묵과 모든 분열의 요소를 넘어 함께 사는 생활로써 교회일치의 생활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특별히 가톨릭 신부 2명이 지방 주교의 허락을 받고 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수사들은 독신생활, 모든 재산의 공유, 순명에 대한 서원을 하며 종신서원 때에 입혀지는 다음 귀절은 수사들 생활의 목표를 잘 요약하고 있다. “주 그리스도는 그의 자비와 사랑 안에서 당신을 택하셔서 당신이 교회 내에서 형제애의 표증이 될 것을 바라신다.”

이곳을 다녀가는 사람의 수는 엄청나다. 특별히 젊은이의 수가 일주일에 평균 천명을 넘고 있으며 1974년에는 세계 각국에서 2만5천여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젊은이의 공의회를 가진바 있다.

한마디로 떼제는 목상과 체험의 장소이다.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기쁨임을 깨닫게 되고 기도 속에서 자신을 재발견하고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수사들과 함께 기도하고 자기 다른 언어와 사고와 경험과 종교를 가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공동체 생활을 배우으로써 우리의 삶이 참다운 축제가 되어야 함을 알게 된다.

전주 기도회 안내

- 모든 분들, 특별히 젊은 분들을 초대합니다. 단, 기도하고자 하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 한국에 진출해 있는 떼제 수사님들과 홍콩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홍콩 신부님 일행이 이 기도회에 참여합니다.
- 기도회 후에 떼제에 대한 소개와 대화의 시간이 있습니다.
- 외국 사람들을 안내할 수 있는 분들은 교구 홍보국으로 미리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령세미나를 마치고

참된 신앙인의 인격과 자세

유 베드로(鍾韶)

인류 역사는 진능하신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

오늘 우리들은 성령세미나를 통해서 진실한 믿음의 근원을 알게 되었으며, 어제의 나약하고도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탈피하고 새신원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갖게 된 데 대해서 먼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다.

오늘날 우리들의 세대는 너무나도 작박하여 비리(非理)가 현실을 지배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인간들은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타인들의 권리를 짓밟아가 일수이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으려 들며 급기야는 하느님의 진리와 정의·사랑에 맞서 도전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행은 우리에게 진실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남의 인격을 인정치 않을 때, 남도 나의 인격을 인정치 않을터인즉, 여기에는 반목과 불신이 뒤엉켜 종내는 미움이 생기는 것이다. 미움은 증오를 가져오는 죄악을 불러일으킨다. 죄악이 커지면 끝내 무서운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 신도들의 자세는 어떠한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결손’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싹터야만 인간으로서 아닌 신자로서의 인격과 자세를 갖춘 것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결손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나와 이웃을 기쁘게 하며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기 때문이다.

사도 바오로의 말씀에 “인간에게는 두 생명이 있다”고 했다. 하나의 생명은 아담의 생명이요, 또 하나의 생명은 성령이 역사하는 생명이라고 하셨다. 전자의 생명은 목숨만을 이어가는 죄악의 생명이요, 후자의 생명은 하느님의 사랑이 담긴 생명이다. 여러분은 어떠한 생명을 선택하겠는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들은 회개하고 용서를 빌 때라고 본다.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구원의 소망을 들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느님의 능력에 확신을 갖고 의지할 때 아버지께서는 은총을 주신다. 바야흐로 새봄의 대지 위엔 서기가 가득차 있다. 이제 우리들도 자기개발의 터전 위에 그리스도 사랑의 씨앗을 무한량 뿌릴 때이다.

사도 바오로의 말씀대로 “하느님은 우리 가운데에 현존하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로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써 실천할 때 하느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 하느님의 현존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은총인가!

우리 주(主) 예수님의 정신과 뜻에 따라 산다는 것으로 여기에 우리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완성이 있다. (복자성당)

해외여행 업무개시
국제여행사 개설

전 일 관 광

전 화 ⑥ 6 6 6 6 ~ 8
대한항공 국내의 대리점
설악산·제주도·전국명승지
성지순례(국 내외)안내

장례 수의 쉼타

(한복전문)

신자들의 많은 이용 바람
연락처 ⑥ 9 1 9 3
⑥ 0 9 1 5
주-배 바올라(망녀)

청 자 당 제 과 점

서 을 분 식

각종 빵과 결혼·생일·선물용 케익 전문
☎ ⑥ 0 9 1 0
군산시 중앙로 1가 68(우체국 옆)
김 보나벤투라(영수) 이 스텔라(규자)



□ 6지구 순교자 유해 순회기도회 일정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위한 정신운동으로써 개최되고 있는 순교자 유해 순회기도회가 그동안 농번기로 중단되었다가 오는 7월 10일부터 6지구에서 다시 개최됩니다. 순교의 열을 되새기는 기도회에 많이 참여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짐합시다.

진안: 7월 10일~11일 장수: 7월 15일~16일 한들: 7월 16일~17일
 무주: 7월 20일~21일 잠계: 7월 23일~24일

□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 명단 및 주소록 (본당·기관 및 단체) 발간

알기 쉽고 편리한 전주교구만의 간략한 주소록이 발간되었다. 교구청 홍보국에서 발간한 이 주소록은 각 본당, 사제관, 수녀원, 기관 및 단체에 배부해 드릴 예정이다. 주소록이 필요하신 분은 홍보국으로 연락하시면 받을 수 있다.

□ 교리교사 하계 수련회

교리교사 연합회는 아래와 같이 교리교사 하계 수련회를 갖는다. 이 기간 동안 특별히 83 주일학교 여름방학 교리교재(「알아 들으시오」-광주교구 교육국 발행)에 관한 안내 및 200주년 기념 교리 경시대회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간: 7월 18일~21일 장소: 부안 중계
 출발시간: 가톨릭 센터-오전 11시50분, 짐계 터미널-오후 12시40분, 부안 터미널-오후 1시15분(출발시간 엄수 바랍니다)

□ 마니피캇 합창단

전주교구 대학생 연합회 산하 마니피캇 합창단에서는 5월 15일-노송·전동, 22일-술정, 29일-덕진, 6월 5일-파티마, 12일-주현동, 19일-북자동 7개 본당을 방문하여 음악미사를 정성되어 봉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하시는 본당이 있는 경우 신청순서에 따라 계속 방문할 예정이오니 교육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 새로운 단원을 모집합니다

인원: 40명 자격: 전주교구 내 각 대학에 재학중인 신자, 예비신자(음대생 환영)
 기간: 7월 1일~8월 1일 문의: 교육국

본 합창단에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매주 월요일 오후 5시30분에 가톨릭 센터 내 교육관 1층에서 갖는 정기모임에 오셔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뜻 있는 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 용안 천주교회 전화번호 변경: ②-2766
- 푸르실로 소식: 제7차 교구 울뜨레야-8월 28일
 여성 제15차 푸르실로-8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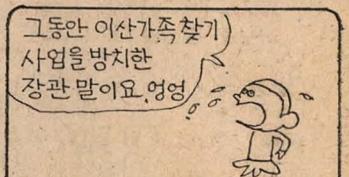
새로나온 책 소개

성서의 인물 2

永井明 지음 홍순자 옮김 국판 184면 2,500원

성서의 인물 1(아담과 하와, 카인과 아벨, 아브라함, 예사와 야곱)에 이어 이 책에서는 요세과 모세에 관하여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 식으로 엮어 성서를 처음 대하는 사람이나 성서를 읽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쉽게 읽고 맛들일 수 있도록 했다.

요심이(518) 김병오



十찬미예수

참 생명이신 하느님 안에 모두 생활하시길 빌면서, 지난번 중앙성당에서 있었던 「말씀과 성령」 피정에 협조해 주신 분들에게 지면을 통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길은 진리의 말씀을 맛들이고 깨달아 생활화 하는 것임을 이웃들에게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찬미와 감사를 드리면서...

1983. 7.

베소라 성서 연구원

전주 노라노 양재, 미용, 한복 학원

미용 시험일자 9월 18일 2차 11월 6일

미용, 양재, 한복, 재봉과 수시 모집, 개인지도, 가정양재반, 기숙사 완비, 통학권 발급
 전주시 교사동 1가 429
 전북 적십자사앞 5층건물
 김 베드로·김 안나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시스템의 현상 인화기 신설

미영칼라현상소

☎ ③ 3651·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전(토마스모어)

은인을 구함

주님 「전자복사기」를 구입하게 은인을 보내 주소서. 그래서 이 교장의 구원사에 동참하신 당신 역사를 더 빨리, 더 많이 더 오래 당신 백성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리라 순진하게 믿습니다. (값은 370만원입니다)

연락처: 호남 교회사 연구소(전화 ③ 9449)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웨플라레 여자 월 전체 모임: 10일 오후 2시, 장소-중앙성당
 2. 특별 방송 안내: 11일~18일 오전 6시45분~7시, 전주 MBC 라디오
「내 고장 전북」-한곡 교회사에 대하여(김 진소 신부 대담)
 3. 성령쇄신 봉사자 모임: 14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장소-가톨릭 센터
 4. 제3차 중·고 지도자 연수회: 15일 오후 5시~17일 오후 1시, 장소-센타, 회비-9,000원,
대상-각 본당 중·고 지도자
 5. 전주교구 M·E 소개의 밤: 16일 오후 4시, 장소-가톨릭 센터
 6. 제1회 산간학교 지도자 연수회: 17일 오후 2시~6시, 장소-가톨릭 센터, 대상-각본당 산간학교 지도자
 7. 군·육지구 교리교사 연수회: 13일~15일(2박 3일), 장소-성연 복지원
- 축! 영명: 성 베네딕도(11일)-박 성운·김 반석·김 병운·김 용태·현 유복·권 이복·유 영도 신부님
성 보나벤투라(15일)-이 수현 신부님

(중앙)

전화 ⑤1711~3

주임 신부 윤정철
보좌 신부 안철인
사도 회장 김인협

1. 첫 영성체 및 초등부 영세교리: 16일~8월 15일까지
대상-국민학교 3학년~6학년(사무실에 신청)
 2. 성탄반 교리안내: 20일 매주(수) 저녁 7시30분, 2층
 3. 청년성가대 모임: 매주(목) 저녁 8시, 젊은이들
 4. 목자기도 100만단 바치기: 7월 5일까지 144,823단
 5. 중학교 신자 교리반: 매주 일 학생미사 후
 6. 중·고 수련회: 회비-4천원
 7. 성전 신축현금 신입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박화옥(1만원), 정계성(20만원), 이용주(3만원), 박은란(5만원), 임선호(2만원), 이인순(3만원), 이금진(10만원), 악명(100만원), 추가-강재희(100만원) 전병진(30만원)
- 신입누계: 193,847,600원 납입누계 62,548,500원
□ 지난주 봉헌금: 803,415원 교무금: 582,800원

(노송동)

신부 ⑥0969 수·사 ②7032

주임 신부 김응태
보좌 신부 나춘성
사도 회장 이홍재

1. 축! 본당신부님 영명: 11일, 축하식-오늘 공식미사 후, 신부님의 건강을 위해 많은 기도 바랍니다
 2. 꾸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각팀의 간부님들 빠짐없는 참석 바랍니다
 3. 본당 청년회 창립총회: 오늘 오후 7시
미혼 남녀 청년들 빠짐없는 참여 바랍니다
 4. 환자봉사체: 매일 셋째주(화) 오후 3시부터
 5. 각 구역의 반장 명단 제출: 각 구역장께서는 해당구역의 반장들 명단을 속히 제출하세요
 6. 아파트 성모회 월례회: 14일 오후 2시, 참석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375,505원, 아파트: 74,215원
지난주 교무금: 423,500원, 아파트: 8,000원

(덕진)

신부(3) 2182 주임 신부 김봉희
수녀(72) 1222 보좌 신부 정양현
사무(72) 6259 사도 회장 양상열

1. 축! 영세: 9일, 90명 영세
 2. 오늘 모임: L.M. 꾸리아 모임(오후 2시)
 3. 분당 김경환(마지아) 학사반 방학중: 청년 학생들을 위해서 수고하시겠습니다
 4. 구역장·반장 2차 모임: 16일 저녁 8시30분
 5. 어린이 「합주미사」 봉헌연습: 주일 3시 미사후
 6. 새신자(예비신자) 환영 입교식 예정: 20일 저녁 8시
 7. 본당 월보 원고 마감: 신자들의 광장-200자 원고지 2~3매
 8. 치주모임: 반석회-야외 부부동반, 청년연합회
- 지난주 봉헌금: 402,140원 교무금: 869,000원

(복자)

전화 ⑤238번

주임 신부 권영균
사도 회장 조성호

1. 복자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님 대축일 미사
 2. 꾸리아 회의: 오늘 오후 2시, 회의실
 3. 애령회: 13일 오전 10시 사제관에서
 4. 자모회: 11일 어머니미사 후
 5. 성우회 야외행사: 17일(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장소-상관 방면
 6. 중고생 산간학교: 28일~31일, 부안 중계
 7. 가정방문: 14일
 8. 새 영세자 보충교리: 14일 저녁미사 후
 9. 금주전례: 해설-황만균, 독서-①유기순 ②이상인
차주전례: 해설-유덕열, 독서-①강기연 ②천 건
- 지난주 봉헌금: 587,580원

(서학동)

전화 ③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형수

1. 반장회: 공식미사 후
 2. 성심부녀회: 13일 오후 2시
 3. 할머니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주일학교 하기 특별교리: 25일~31일까지
부모님들의 관심을 바랍니다(특별히 첫영세자)
 5. 교무금을 7월까지 완납합니다
 6. 예비신자 모집합니다
교리시간-매주일 공식미사 후(교리실)
 7. 사제양성 후원회: 김강미, 임명(44명)
 8. 차주전례: 독서-①김낙원 ②차상열
신자들의 기도-김낙원·김복순·박경환
- 지난주 봉헌금: 277,756원 교무금: 354,500원

(숲정리)

전화 ⑦366

주임 신부 김종길
수·유 ⑥9567 사도 회장 김수업

1. 꾸리아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성모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성가연습: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4. 어머니미사: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성가책 지참)
 5. 첫영성체자 교리 첫모임: 23일 오후 5시
 6. 금주전례: 해설-김경주, 독서-①박해근 ②이기배
기도-김영채·김정분
 7. 차주전례: 해설-김경주, 독서-①노재두 ②박병일
기도-이기배·박시현
- 지난주 봉헌금: 168,635원 교무금: 445,150원

(전동)

신부 ⑥6208

주임 신부 김병열
사무 ③3222 보좌 신부 박찬길
수녀 ②8347 사도 회장 이종두

1. 사도회·자모회·장우회: 공식미사 후
 2. 성마리아 꾸리아: 오늘 오후 2시
 3. 성화회·포미시움: 다음주
 4. 미사중 회합 절대금지
 5. 첫 영성체: 17일 ※ 부모님들의 협력 바랍니다
 6. 학생회 하기수련회 참가신청 접수: 10일~20일
 7. 학생성가대 회원 신청접수: 10일~17일
 8. 글로리아 성가대원 지리산 등반: 18일~20일
 9. 축! 탄생
○베델셀: 의장-이기원, 총무-손미라, 지도자-김송, ○백합셀: 의장-이정희, 총무-고은영, 지도자-장정애
 10. 차주전례
아침미사: 해설-박중주, 독서-①김동연 ②최종만
공식미사: 해설-정영옥, 독서-①고수창 ②유기동
저녁미사: 해설-김윤주, 독서-①경양주 ②김희진
- 지난주 봉헌금: 625,210원 교무금: 448,000원

(파티마)

신부 ⑥0915

수녀 ④4804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황희상

1. 복자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님 대축일
 2. 오늘 하루와 미사 김 진소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오늘은 김 진소 신부님의 영명축일이오니 미사중에 신부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유치원과 수녀원 축대 보수 시작: 교무금과 주일금으로 협력 바랍니다
 4. 성당에 선풍기가 낳았습니다: 10여개 필요합니다
선풍기 기증하신 분-윤안토네오 1대, 최아블로니오 2대, 은모니카 1대, 김안철모 1대 감사합니다
 5. 성함과 성자 위해 20만원 희사: 익명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268,210원 교무금: 559,000원

연중 제15주일

(복자 안드레아 김신부
대축일 미사)

기도서 496 면

제1독서:역대 하 24, 18-22

제2독서:로 마 5, 1-5

복음:마 태 10, 17-22

숨정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인 홍보국
인쇄처 관리국

편집실: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0042·0043

부당해고된 근로자들, 나흘째 단식중

거듭 거듭 계속되는 부당해고로 살길이 암담해진 근로자들이 이리 창인동 성당에서 나흘째 단식을 하고 있다. 1982년 이리 태창섬유 주식회사는 J.O.C (가톨릭 노동 청년회) 회원인 근로자들을 해고한 바 있다. 이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렵게 일자리를 얻었으나, 또다시 생계수단을 뺏기고, 자신들의 절박한 처지를 「단식」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어린 처녀의 입장에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절실한 처지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건강상태도 매우 열려된다.

■ 사건의 예 1.

작년에 태창에서 해고된 김선옥과 문진주는 금번 5월과 6월에 이리 화신섬유에 입사하여 열심히 일하던 중, 지난 6월 29일 아무런 이유없이 해고당했다.

■ 전주교구 정평의 경위조사

본교구 정평은 7월 7일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고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기로 하여, 8일 11시 30분경 이리 화신섬유 공장을 찾아가 공장 대표를 만났다. 이어 오후 1시 30분에는 이리시장을 만나 부당해고된 두 근로자의 복직을 요청했으며, 오후 6시 30분에는 이리시장의 전화통보를 들었다.

회사측의 이야기 두 사람은 능력면에 있어서 회사가 꼭 필요로 하는 근로자들일 뿐 아니라, 회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다른 근로자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입사 이후 모처로부터 압력을 받아, 해고 사유조차 밝히지 못하고 해고 했다. 회사의 입장으로는 꼭 필요한 근로자들인지라 다시 함께 일하고 싶다.

이리시장의 답변 이 문제는 온전히 회사자체의 문제이고, 두 사람을 복직시킬 자리가 회사에는 없다고 한다.

■ 이외에도 부당하게 해고당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다만 너무나 두려워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당국은 이러한 문제의 책임을 온전히 회사자체에 돌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당국은 노동운동 때문에 기업이 도산된다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 이 문제를 비롯한 부당한 다른 사례들에 대해 교회는 계속 관심을 갖고 알리며, 대처해 갈 것이다. 교구 정평 상임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갖고, 사건의 긴박성을 감안하여 11일(월) 오후 8시에 정평 총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1983년 7월 8일

